

# 수산물 가격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 전남도 45%까지 낮춘다

평균 6단계 유통...산지 11.8, 도매 11.5, 소매단계 31.5% 붙어

2018년까지 1786억 들여 직매장·유통센터 건립 유통단계 축소

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단계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에서 도매·소매 등 기본적으로 6단계를 거치면서 생산자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연근해안에서 잡히는 꽃게, 병어, 민어, 조기, 고등어 등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54.8%가 유통비용이었다. 산지에서 출하되면서 11.8%가 붙고, 도매 단계에서 11.5%, 다시 소매 단계에서 31.5%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민어 1kg를 7만원에 주고 샀다면, 유통마진이 3만8360만원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산지에서 멀수록 유통단계는 늘어나 소비자 가격은 더 불어난다.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을 벗어나면서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을 치르고 전남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식 수산물의 경우도 유사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현재의 6단계의 유통단계를 4단계로 축소해 4년 뒤인 2018년까지 소비자 가격 중 유통비용을 절반 이하인 45%로 낮출 방침이다. 유통망의 자동선별기, 냉각수 공급시설, 저온저장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수산물 유통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민어1kg 유통비용 (단위:%)			
소비자가	유통비용 3만8360원(54.8)		
7만원	산지출하 11.8	도매 11.5	소매 31.5

올해까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수산물종합센터 2곳(362억원), 저온저장시설 969곳(107억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2곳(159억원), 적갈타운 2곳(200억원) 등에 828억원을 투입한 전남도는 내년에는 260억원의 예산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곳(60억원), 직매장 1곳(10억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2곳(70억원), 저온저장시설 167곳(20억원), 영광 향화도바다매체타워(100억원)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모두 1786억원을 유통마진 줄이기에 쓸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싸고 맛있는 전남의 수산물이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혁신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산물 산지 유통기반시설의 낙후된 위생 및 상품화 설비를 모두 교체하고, 도매와 소매 단계에서 1단계씩 줄이면 산지 가격보다 유통 마진이 더 많은 현실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조기, 민어 등 전남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마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1786억원을 투입해 유통마진 줄이기에 나선다. 사진은 막 잡아올린 참조기를 위판 중인 목포수협 위판장 최근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중국산 농수산물 저가 공세 막을

### 제1과제는 생산비·유통비용 절감”

전남도 한·중FTA 대책위원회의

유기농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필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각각 절감하고 유기농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혜 산업은 극대화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종합 대응 대책을 수립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남도는 24일 정부의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산업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수산분야 등의 체계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FTA대책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원회(위원장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지사)에서 전남도는 산업분야별로 한·중 FTA 타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남도의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FTA 타결 상황에 적

극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응 전략도 검토했다.

대책위원들은 전남도에 인터넷 판매, 수산물의 경우 냉장 기술개발, 종자산업 육성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중국 전문가 양성, FTA 활용 제고를 위해 동부권에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자 추가 배치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의 절감을 통해 갈수록 질이 향상되고 있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농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내놓았다.

전남도는 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의 경우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정부 대응에 맞춰 내년 1월 말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농수산 품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보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말로만 상생...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요지부동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대비 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7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백화점이 10만원에 판매했다면 판매수수료율은 30%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28.6%, 지난해 28.5%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9.3%로 가장 높고 이어 현대(28.2%), AK플라자(28.7%), 신세계(27.8%), 갤러리아(27%), 동아(24.8%), NC(23%)가 뒤를 이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 13개사 조사

백화점 28.3% 작년과 비슷

TV홈쇼핑 34% 절감 감소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9.3%에 달했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 측에 대장을 임대해주고 상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임대율’ 방식은 21%를 기록했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로 조사됐다. 대기업 납품제품에는 고가의 상품이 많아 판매수수료도 덩달아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3.7%, 14.2%에 그쳤다.

조사 대상 TV홈쇼핑 6개사(CJO, GS, 현대, 롯데, NS, 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33.9%에서 지난해 34.3%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낮아졌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5.4%로 가장 높고 롯데(35.3%), GS(34.9%), CJO(34.8%), 홈쇼핑(32.5%), NS(30.2%)의 순이다.

TV홈쇼핑사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로 대기업(3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 제품의 낮은 반품률, 우수한 거래조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42.0%로 가장 높고 진·유니섹스(40.9%), 여성캐주얼(40.5%), 남성캐주얼(39.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463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인터넷이 비용이 443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판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750만원이다. 이중 ARS 할인비가 35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할부비는 2610만원, 기타 판촉비는 1620만원이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천일염

세계 명품소금!!  
전라남도가 자신있게 보여드립니다.

서남해안의 청정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천연 미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음식의 맛을 좋게 해주고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 <http://solarsalt.jeonnam.go.kr>

NAVER | 전라남도 천일염